

매일경제TV(MBN) 대선주자 특별대담

▶며칠전 후원회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하셨는데 간단한 대권도전의 변은?

정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최고의 꿈일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꿈과는 관계없이 그 시기가 요구하는 때 시기 과제가 있다.

한국의 이 시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개혁, 또 고질적인 동서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문제, 또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정치가 정도로 가는 것. 이런 일들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나는 이 3가지 문제에 대해 욕심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있고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날 후원회에서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친구같은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

역대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지만 대체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너무 높은 곳, 너무 먼 곳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 국민들을 끌고 가는 것으로 인식되어있다. 지금도 대통령하면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팔메 수상은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러다녔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누님의 아파트에서 출퇴근했고, 링컨 대통령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백악관을 개방하여 민원인과 함께 대화했다.

모두다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얼마전 TV에서 보니까 코스타리카 국가의 지도자가 경호인 1-2 사람 데리고 청바지 입고 현장을 순시하는 모습을 볼 때 부러웠다.

국민들과 가까이에서 국민들 소리를 좀더 가까이서 듣고 친근한 서비스를 하는 지도자가 앞으로의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내가 되면 '친구같은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보고 싶다.

▶ 그동안 '영남후보론'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 내가 그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는다. 일부러 기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후보론'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영남쪽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 보자, 결국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동서통합을 하는 전국정당이 되려면 영남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영남후보론인 것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출신에 관계없이 전국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 특히 영남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까 영남후보론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 영남 득표력의 실체는?

역시 해 봐야 안다. 내가 95년에 부산시장에 출마했는데, 그때 우리 당은 김대중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37.6%를 득표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35.5%를 득표했다. 그 때 내 지위가 민주당에서 실권과 지위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만일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내가 민주당에서 실권과 지분이 상당히 큰 대주주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보다는 훨씬 높게, 오히려 이회창 후보를 앞지르는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최근 논의되는 '당권 대권 분리', '3월전당대회'에 대한 생각은?

당권대권 분리는 오래전부터 내가 주장해오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당정 분리로 표현했다. 대통령이 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는 제왕적 권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당정은 분리해야 된다, 그 당정 분리의 정신이 바로 지금의 당권 대권의 분리로 나타나고 있다. 찬성한다.

▶ 민주당 쇄신 논의와 관련하여 노고문의 행동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때 곤란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쇄신을 반대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보궐선거가 끝나기 전에 제도적 쇄신, 전당대회를 통한 쇄신을 내가 먼저 주장했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당내에서 누구누구 사람을 찍어서 당내에서 밀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인적쇄신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점을 반대했었다.

당이 사람 한둘 밀어낸다고 쇄신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생해왔던 동지들에게 너무 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보다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할 세력은 등장하고, 바꾸어야 할 제도는 바꾸자고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당의 기자실 의견부터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 아주 나빠졌다. 노무현은 쇄신을 반대하고 동교동계와 손잡으려고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나도 좀 흔들려서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반

대했는데 앞으로는 찬성해야겠다, 민심이 그러하니 할 수 있느냐“고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앞뒤 맞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돌이켜 보건데, 한때 여론의 눈치를 좀 본 것이 실수였다. 역시 눈치를 보아서 안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소신껏 하겠다.

▶검찰 등의 중립성에 대한 견해는?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다. 아무리 중립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야당시절에는 특검제 하자, 인사위원회 제도도 도입하자, 국정원의 역할을 재조정하자 등등의 주장을 하다가 정권을 잡고난 후에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이런 권력기관이 정권을 뒷받쳐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야당 시절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웠든지, 권력기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든지 실천되지 못했다.

나는 이것이 그대로 실천돼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검찰의 불신을 살만한 것은 검찰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주장하는 정계개편의 취지와 방향은?

우리 사회가 정계개편하면 단어 자체에서 나쁜 뜻으로 연상된다.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은 기존의 정계개편과는 다르다. 옛날에는 정계개편하면 겁주고, 이익주고, 뒷방에서 쭉덕쭉덕하는 정계개편이이었다. 어느날 보니까 보따리를 싸들고 당이 옮겨져 있는 식이었으니 국민들이 흑막이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정계개편의 주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정당이 정책과 노선에 따라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정책과 노선과는 관계없이 어느 지역

출신이나에 따라 정당이 편성되어 있으니 선거 때에는 지역감정을 자극해서 표를 받고, 의정활동할 때는 지역정서를 반영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걸 고치자는 것이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누가 정권 잡아도 그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

좀더 민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고 개혁 지향적이고 이 시기에 동서통합을 하자는 좀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함께 뭉치고, 과거의 관행과 법칙들을 가지고 가자는 집단은 또 정당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과 노선에 의한 정당으로 재편성하자는 주장이다.

▶노고문은 92년 이후 선거에서 계속 떨어지곤 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는 우려도 있는데....

90년 3당통합을 거부하지 않고 영남당으로 따라갔다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4번씩이나 떨어지고 되겠나 하는데,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 당선되기 전 11년 동안 4번씩이나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일을 잘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연히도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였다.

이 다음 한국의 대통령도 16대 대통령이다. 나도 6번 출마해서 4번 떨어졌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부서를 찾아가서 보고받고 사무관과 이메일 논쟁 등 이색적인 행동에 대해?

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받은 것은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무슨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근데 별 뜻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버린건데, 왜 내려갔냐 하면 장관실에서만 지내다보면 직원들 사무실 구경도 한번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한번 둘러봤던 것이다.

다음에 재정부 사무관과 이메일로 토론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나는 권위주의나 형식주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만나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격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수협정상화 방안에 관해서 해양수산부와 재정부가 의견이 달랐다.

장관끼리 만나서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실무자가 납득해야 그 일이 잘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부 실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비서실에서 처음에는 왜 장관이 과장을 만나려 하느냐고 못만나게 하더라. 그래서 화를 내고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만나서 토론하고 토론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그렇게 하니 합의 이끌어내는데 유리했다.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보여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공무원들에 대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무원사회의 병폐인 무사안일, 복지부동, 관료주의, 권위주의 등등의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또한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을 보면 자질이 우수하고 의욕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책임을 회피할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문화가 윗사람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상명하복식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조그만 실수가 있으면 실수에 대해 엄한 추궁이 따라오는 문화이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면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것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못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는 감사제도가 아니라 잘한 것을 찾아내는 감사제도, 좀더 폭넓은 재량을 주고 결과로서 책임을 물어나가는 결과책임제 등 공직사회의 제도를 바꾸어주는 것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공직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장관보다 대선후보로서 열을 올렸던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에 관심은 있었으나, 그때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장관직을 잘 수행해서 공무원들한테 인정을 받느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장관 일을 열심히 했다. 고시공부 해본 이래 가장 열심히 일했다.

정치적 발언이 2번 나왔다. 그런데 그것 하는데 전부 합쳐서 1시간 채 안걸렸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비추어졌을 뿐이다. 정말 장관 열심히 했다.

▶ 컴퓨터 실력은?

상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할 줄 안다고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 두드리는 연출을 해보이는데 컴퓨터 실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컴퓨터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이치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사회가 디지털화 해가면서 사회, 문화 제 영역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냐, 개인의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잘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인으로서의 후자가 더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가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 대응, 대통령이 자주 말씀하시는 디지털디바이드의 극복이라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컴퓨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해서 정치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개발했고 현재 내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상품화해 볼 생각도 있는데 시간이 없다.

▶경제 문제에 관해 생각은? 현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생각은?

결론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재벌정책과 관련 논란되어온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경제력 집중을 통한 자원의 독점, 그로 인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이 재벌문제의 초점이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의 재벌문제의 초점은 재벌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쟁력있는 기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채를 줄여라, 상호지급보증 금지를 통한 투명성 확립,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경영자 및 대주주의 책임 강화 등 재벌 내부에 있어서의 경쟁력, 경영의 합리화 문제로 모아져 있다.

국민의 정부의 재벌정책은 재벌 살리기였다고 생각한다. 재벌을 살리는 와중에서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빚보증으로 함께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지급보증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벌해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재벌에 대한 공격적 행위가 아니라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이었다.

▶노무현 고문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98년 현대자동차 파업 중재역할을 했었고, 99년에는 부산의 삼성자동차 매각협상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중재차 갔다가 노동자들로부터 계란세례도 받은 것으로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일들에 관여하게 되었는가?

노사문제에 관여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산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노사분규를 부추기고 투쟁을 선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사 분규 현장에 가서 조정을 해서 타협, 중재를 많이 했다.

87년 대우조선에서도 중재를 했었다. 98년 울산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내려가 중재해서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때도 재계에서는 우리쪽 기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정치인이 노사분규 현장에 왜 가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런데 그 당시 울산에 가기 전 한달 정도의 파업기간 동안 1조 5천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 당시 공권력 투입이 되지 않고 원만한 타결을 함으로써 결국 한달 이상의 생산공백을 메꿀 수 있었다. 그렇게 따져보면 내가 적어도 1조5천억원 이상의 생산타격을 막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자랑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삼성자동차 문제와 대우자동차 문제는 의미가 좀 다르다.

당시 삼성자동차는 르노에 매각하지 못하면 공장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고철로 공장시설을 뜯어내어 팔아야 될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걸 팔려고 하니까 혈값시비가 나오고, 국부유출론이 나왔다. 그러다보니 채권단의 실무자들은 그걸 팔 수가 없었다. 안팔면 고철이 되더라도, 혈값시비가 걸리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단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1원에라도 팔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해서 결국 르노에 잘 팔렸다. 그 결과 지금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경제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해서 '왜 대우자동차를 해외매각 하려고 하느냐', 혹은 국부유출 논란이 있길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같은 여론을 잘 정리해서 매각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삼성자동차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원이라도 팔아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자들이 보기에 못마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고문은 독학으로 사시를 합격하셨고 언제나 서민쪽의 말을 많이 했

다. 그래서 만일 노고문이 집권을 하면 가진자나 보수층쪽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기득권층에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 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다. 이 말의 의미가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서로 한쪽을 패배시키자, 싸우자 이런 뜻이 아니고 다같이 잘 살자 이런 뜻이다.

국가란 것이 자기 스스로 잘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호가 적어도 괜찮고, 자기 스스로 잘 추스르지 못하거나 특히 오늘날 시장경제체제가 경쟁의 체제이다 보니까, 낙오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가야 사회가 안정되고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실제로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된다는 것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서로 통합이 잘 되어나갈 때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가전체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잘 사는 나라 하면서 못사는 사람들도 껴안고 가는 나라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조선일보 인터뷰 거부 등과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잘한다는 지적과 또 다른 편에서는 너무 편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그 문제에 대한 논평에서, 이유가 있나, 정당하냐, 옳으냐 그르냐로 해주었으면 한다.

'막강한 신문과 싸워서 손해보지 않냐' 하면서 걱정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강한 사람과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조선일보랑 싸우는 것이 과격하지 않냐고 하는데, 나는 주먹질하지 않고 말로만 싸운다. 거짓말하지도 않고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들에게 당신은 옳지 않다, 그건 틀린 것이라고 할 말 해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만 써주면 좋겠다. 공정하게 해주면 좋겠다. 나도 정도로 공격할테니까 당신도 정도로 공격해달라. 속뜻 숨겨 놓고, 여론조사할 때 노무현은 빼버리거나, 쓰면서도 천박한 표현으로 이미지를 깎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하자.